

찰리와 함께한 여행

존 스타인벡의 아메리카를 찾아서

존 스타인벡 지음 | 이정우 옮김

문학|394쪽|신국판변형|12,000원|
ISBN 89-5820-073-1(03840)
2006년 11월 10일 출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존 스타인벡과 애견 찰리,
그들과 함께 떠나는 미국의 생생한 뒷골목 여행!

“나는 내가 내 나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에 관해서 글을 쓰는 미국 작가이지만 나는 실은 기억에만 의존해왔다. 그런데 기억이란 기껏해야 결점과 왜곡투성이의 밑천일 뿐이다. 참된 미국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미국의 풀과 나무와 시궁창이 풍기는 진짜 냄새를 모르고, 그 산과 물, 또 일광의 빛깔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써왔던 셈이다. 이른바 작가라면 이것은 범 죄에 해당될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내 눈으로 과연 이 거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다시 발견해보리라 마음먹었다.”

미국과 미국인을 통찰한 '길 위에서 쓴 문학'의 정수

평생 미 대륙 여행을 꿈꿔온 스타인벡은 자신이 직접 주거가 가능하게 설계한 차 '로시난테'에 애완견 '찰리'를 태우고 여행길에 오른다. 그들이 미국 구석구석을 누빈 기간은 4개월, 스타인벡의 나이 쉰여덟이었다. 뉴욕을 떠나 34개주를 돌면서 그가 보고 느낀 것은 미국과 미국인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여행이란 풍경을 버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라고.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에덴의 동쪽(East of Eden)』으로 유명한 존 스타인벡이 그런 여행을 떠났다.

『찰리와 함께한 여행 : 존 스타인벡의 아메리카를 찾아서(Travels with Charley : In search of America)』는 그가 길에서 쓴 문학이다. 그는 여행의 말미에 이렇게 적으며 4개월간의 미국 여행을 끝마친다.

“나의 여행은 출발보다 훨씬 앞서 시작되었고, 돌아오기 전에 먼저 끝났다.”

스타인벡, 그는 미국인이다.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나라 미국에도 계급이 있다면 그는 평범한 미국 서민 계층의 한 사람,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평범함에서 조금은 벗어난 특별함이 배어 있다.

196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는 190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설리너스에서 독일계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학교 생물학과에 진학했으나 학자금 부족으로 중퇴하여 학위는 받지 못했다. 그 뒤 뉴욕에서 신문기자 일과 갖가지 막노동으로 생활하며 글쓰기를 시작했던 그는 자타공인 여행광이었다.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땅을 밟은 초기 개척자들의 방랑가적 기질이 몸에 배었던 탓일까. 그에게 있어 여행은 소소한 일상과도 같았다. 그런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조금은 무모할 수도 있는 발걸음으로 쓴 이 책은 스타인벡이 기록으로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기이다. 미국 작가로서 20여 년의 집필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미국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지 못한 채 잡지나 신문에만 의존해서 글을 써왔다는 그의 고백은 그만의 독특한 여행의 시작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대체 그가 떠난 길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미경으로 훑듯이 전달되는 미국의 생생한 뒷골목 풍경

작품의 서두에서 그가 밝히듯 이 여행기는 스타인벡 스스로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을 재발견하기 위한 탐험이기에 일반적인 여행기와는 다르다. 그가 큰 도로를 피해 시골길로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다닌 곳은 미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나 대도시가 아니다. 34개주를 지나며 누비고 다닌 곳은 미국의 뒷골목이다. 그곳에서 스타인벡은 미국 서민들을 만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다. 거기에는 미국인들의 기저에 흐르는 성향과 감정, 고민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대문호답게 현미경으로 훑듯이 전달되는 미국 뒷골목의 생생한 풍경들은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미국인을 재발견하고 한층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낮익음에서 온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고, 시간이 지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 노작가의 글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글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그가 들려주는 곱살 곳은 미국 여행기를 따라가다 보면 뉴스에서 보던, 관광지에서 접한 미국과는 다른 소소하고 사실적인 미국의 정서를 맞볼 수 있다.

이 여행은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다. 직접 설계해 주문생산한 차는 돈키호테의 그 유명한 애마 ‘로시난테’에서 이름을 빌려왔다. 차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어 닥친 태풍 때문에 노작가는 로시난테를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렇게 어렵게 출발한 설레는 여행은 뉴잉글랜드 지방을 경유하면서 북상해 캐나다 국경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맞닥뜨린 국경 관리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넌더리를 친다.

차를 돌려 시카고로 향하기 전 잠시 머문 호텔에서 만난 얼굴 없는 ‘쓸쓸한 해리 씨’를 통해 당시대 미국과 미국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쉬운 단어를 쓰면서도 누구보다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그의 세밀한 관찰력을 볼 수 있다.

“..... 그 방은 손님이 떠나간 후 아직 손도 안 댄 채로였다. 그 지저분한 방에 앉아 있노라니 쓸쓸한 해리 씨

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저것 뒤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보고 나는 이 방에서 막 떠났다는 그 손님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해리의 직업은 신경을 쓰게 하고 따라서 위에 영향을 주는 일일 게다. 쓸쓸한 해리는 틀림없이 여자가 나간 뒤에 술병을 비운 것이다. 그러나 두통이 났다. 욕실에 떨어져 있는 술 깬 약의 포장 튜브 두 개가 이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로키 산맥을 넘어 태평양 연안 지방을 지나 고향을 방문한 뒤 모하비 사막을 돌파한다. 광활한 풍경 앞에서 “만일 위대함이 인간에게 기대된 것이라면 인간이 위대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여기서 자연을 거스르며 공존보다는 파괴를 일삼으며 발전해가는 미국의 이면을 되짚는다. 자신의 여행 역시 원하는 대로 자연을 마음껏 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빠짐없이 다 보는 것이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면서 관조적인 자세를 보인다. 그렇게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여유롭게 모하비 사막을 관통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음미하는 스타인벡에게서 우리는 그만의 자연사상과 철학적 세계관을 볼 수 있다.

“…… 사막은 결코 생명체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생명과 무생명 간의 마지막 전장일지 모른다. …… 사막과 같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장소야말로 생명 재분포의 엄혹한 모태가 되리라. 사막에 사는 생명체는 황폐에 대해 훌륭한 훈련과 무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렇듯 그릇된 길로 들어선 인간이란 생명체도 사막으로부터 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텍사스에 잠깐 머문 다음 뉴올리언스를 거쳐 처음 계획보다 일찍 버지니아 주, 펜실베이니아 주를 지나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여행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선문답적인 여운을 남기며 미국 여행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여러 사건들을 바탕으로 미국인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부분에서 스타인벡의 미국에 대한 날카롭지만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 내가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한 아메리카인들은 과연 개인으로서 서로 다른 점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차차 전체로서의 아메리카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출신 주, 사회 경제적 지위 및 교육, 종교나 정치에 대한 견해 등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공통적 일반성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 그러나 이 아메리카인이라는 이미지를 살펴보면 살필수록,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욱 줄어든다. 그 이미지는 점점 더 역설적인 것으로 비쳐지지만, 내 경험으로 볼 때 역설이 너무 자주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방정식에 어떤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싶다.”

오래된 미국의 길에서 발견하는 오늘의 우리

스타인벡이 이 책을 쓴 1960년대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선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본 결코 치자면 최고조기였다. 그야말로 미제라면 뭐든 다 좋았던 시절이었고, 단연 미국인들의 자부심 역시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다. 그 시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미국의 뒷골목을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탐색한 그의 시선이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은 분명 많이 바뀌었다. 원조하고 원조받는 처음의 일방적 관계와 달리 이제는 경쟁도 하는 관계이다. 더 이상 미국이 막연한 동경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아직 우리 안에서조차 저울질되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우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존재이다.

스타인벡의 여행기는 그런 미국을 우리가 더 근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 세계의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해결사이면서 동시에 첨예한 갈등의 근원지인 미국을 알기 위해 더욱 거대 매체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스타인벡은 사람을 통해 미국을 보여준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이 아

닌 조그맣고 오래된 책 하나가 보여주는 미국 여행기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선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 책에 펼쳐지는 50년 전 미국을 보다 보면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고도화되어 가는 자본주의, 산업화, 그 안 개개인의 모습에서 지금의 한국인이 투영된다. 신기하게도 ‘서구화’라는 말의 의미를 미국의 풍경에서 찾는 것이다.

스타인벡은 여행을 통해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했다. 자연의 황폐함과 사회의 모순을 접할 때마다 쓸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이 있다. 그렇게 여행은 길 위에 펼쳐지는 자신을 둘러싼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포착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준다.

스타인벡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어디로 떠나는 여행이든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기에 풍경은 그저 뒤로 아스라이 사라질 뿐이라는 것. 이 노작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애정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바라보길 권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미국을 모른다. 물론 한국도 모른다. 미국 구석구석 뒷골목을 헤집고 다닌 스타인벡도 여행의 끝에서는 자신의 조국이지만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되리라. 미국과 미국인 그리고 한국의 오늘에 대하여…….

세월을 뚫고 선연히 전해오는 번역의 힘

이 책은 1965년에 삼중당에서 출간한 『아메리카 초상』을 재출간한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번역자 고(故) 이정우 씨가 번역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한 문장 한 단어 정성스럽게 원전에 충실히 번역한 문장이 여간 고졸하지 않았다. 당시 존 스타인벡이 여행한 시기의 사회상과 분위기와도 잘 맞아 궁리에서는 새 번역보다는 ‘찰리와 함께한 여행’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재출간하기로 하였다.

재출간을 위해 유가족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생전에 번역자가 존 스타인벡의 이 책을 번역할 당시의 애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직 국제 저작권법에 대해 생소한 시절 이미 이정우 씨는 이미 국제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원저자를 존중했기에 미 대사관을 통해 스타인벡과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받아 번역을 시작했다. 더구나 번역 중 의문이 생길 때마다 스타인벡과 직접 서신을 보내고 받으면서 진행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었다. 한번은 스타인벡으로부터 “미스터 리, 당신이 해석한 문장이 내가 쓰고자 했던 의도보다 훨씬 더 훌륭하니 꼭 그렇게 번역해주시기 바라오”라는 답장을 받았다고도 한다.

진솔한 번역은 세월이 지나도 그 의미가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상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힘을 발휘한다. 좋은 번역을 남긴 고 이정우 씨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이 책의 번역 인세는 번역발전기금으로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기부될 예정이다.

지은이 | 존 스타인벡

미국의 소설가. 190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설리너스에서 독일계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학교 생물학과에 진학했으나 학자금 부족으로 중퇴하여 학위는 받지 못했다. 그 뒤 뉴욕에서 신문기자 일과 갖가지 막노동으로 생활하며 글쓰기를 시작했다. 1929년 『황금의 잔(Cup of Gold)』으로 등단했으며, 1930년 결혼 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 1939년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로 풀리처상을 수상했으며, 1952년 『에덴의 동쪽(East of Eden)』, 1961년에 『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Our Discontent)』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196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1968년 작고하였다. 그 외 작품으로는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

n)』(1937), 『통조림 골목(Cannery Row)』(1945), 『진주(The Pearl)』(1947), 『빨간 조랑말(The Red Pony)』(1949), 『미국과 미국인(America and Americans)』(1966) 등이 있다.

윤진이 | 이정우

192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동화통신 편집부장을 지냈고 월남 특파원으로도 활동했다. 1974년 미국으로 이민, 1980년대 말 한국으로 돌아와 광고대행사인 유니기획 대표이사를 지냈다. 1996년 2월 심장마비로 타계하였다.